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연화사 주지 정법 스님

"어린이 곁에서 부처님법 알려요"

"누가 가르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우리절에 찾아와 뛰어놀고 부처님오신날에는 장기를 뽐냅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과 스님이 좋고, 부처님법이 좋아지니 절에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제 어린이 포교법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 고개 위에 자리한 연화사는 작지만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절 아랫동네 '푸른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으로, 주지 정법 스님(사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기도 하다. 3년 전 연화사 신도의 딸이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미술교사로 자원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푸른 공부방'을 처음 찾게 됐다. 스님은 "우리 절이 있는 만덕은 부산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 어려운 가정이 많은 편인데, 초 · 중 · 고교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저녁도 함께 먹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힘이지만 꼭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스님은 매월 쌀 1말과 여러 가지 부식거리, 20만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푸른 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 힘든 학생들에게 무료 학습 지도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부방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 봉사자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정법 스님.

정법 스님은 작지만 항상 아이들이 찾아오는 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스님은 매월 쌀 1말과 여러 가지 부식거리, 20만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푸른 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 힘든 학생들에게 무료 학습 지도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부방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 봉사자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정법 스님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인지 언제부턴가 이곳 공부방 학생들이 연화사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됐다. 어느 누구도 절에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 것. 이번 설날에도 어김없이 스님을 찾아와 세배를 했다. 부처님오신날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절일을 돕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공부방에서 배운 악기연주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스님은 "아이들이 법회를 보고 교리공부도 하면 좋겠지만, 공부방 후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님이 고맙고, 불교가 좋고, 또 절에 놀러가고 싶다는 신심이 절로 생겨, 이제는 모두 불자가 됐으니 어린이 공부방 후원이야말로 새로운 포교방법이 아니냐"며 기뻐했다.

사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어린이와 중 · 고등학생 법회를 지도해온 경력 20여 년의 어린이포교 베테랑스님이다. 19세 때 어린이법회 지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조계사 중 · 고등학생회를 다년간 지도하기도 했다.

3월 연화사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새로운 도량을 열고, 시민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도심포교를 시작한다. 정법 스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린이포교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중 · 고등부 정기법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연화사 새 도량은 법당도 마당도 넓어서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놀토마다 절에서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어린이와 중 · 고등부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법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죠."

정법 스님은 포교는 베풂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모두 부처님법으로 행복하니, 최고의 포교인 셈이다. (051) 504-5522 박지원 기자

"재가불자여 간화선 하라"

벽송선원 3월 15~22일 재가불자 벽송선회 개최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재가불자만을 위한 선회가 또 한번 열린다.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은 3월 15~22일 8일간 제2회 재가불자 벽송선회를 개최한다. 벽송선회는 간화선 수행의 이론과 실참 향상과정으로 이제껏 출가수행자를 대상으로만 열렸으나, 재가불자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처음 열린 후 이번이 2번째다. 첫 재가불자 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명의 우바새, 우바이가 모여 월암 스님과 함께 간화선을 수행하고 낙오자 없이 전원 회향했다.


월암 스님.

월암 스님은 "최근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곳곳에 시민선방이 들어서고 안거에 들어가는 재가자가 많기 때문에 제1회 재가불자 선회를 열 당시 참선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참가자를 맞았다. 하지만 대부분 선에 관한 정견이나 이론의 토대 없이 화두 하나 받아 안거에 들어가니까, 애를 쓰기는 쓰지만 바른 길을 몰라 많이 헤매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초 연 1~2회를 예상했지만 재가불자 선회가 시급함을 인지해 올해에는 계절마다 한번씩 4회에 걸친 선회를 열어 어디서도 쉽게 물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간화선에 대한 정견 정립과 실참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번째 벽송선회의 일정 역시 출가수행자 선회와 같다. 새벽과 저녁은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낮 동안은 '부처님의 말씀'인 교(敎)에 빠져든다. 모든 선회의 공통 교재는 <간화정로-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로 저자 월암 스님이 직접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견성'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참'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간화선과 재가자의 간화수행' '간화선과 중생회향' '선과 노동' '동정일여의 수행' '한국의 선사상' 등을 주제로 10여 차례에 걸쳐 강의하게 된다. 방부는 5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회비는 20만원이다. (055) 962-566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예서건설 천만원 후원

평양 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여 스님이 예서건설 하종곤 대표이사(왼쪽)로부터 햇빛발전소 건립후원금 1000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정여)은 2월 9일 오후 2시 범어사 주지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고 예서건설(대표이사 하종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000만원으로 현재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 중인 '평양 우리 민족 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햇빛발전소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북한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고, 원자력발전소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실효성이 높은 지원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서건설 하종곤 대표이사는 기금 전달 취지문을 통해 "이번 사업은 정여 스님의 지도 아래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이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햇빛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현재 경색된 남북 당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여 스님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한식구임을 인식하고, 북이 굶고 있다면 더 이상 굶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여 스님 및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3월 18일 중국 심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햇빛발전소의 설립 장소 및 착공 일정 등에 관한 본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 햇빛발전소 건립 장소로 북한 낙랑구역 내 영 · 유아, 어린이 계층 취약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051)442-6321 박지원 기자

"내 발원은 떠나오던 날 이미 성취"

보광 스님 십보일배로 부산~태백 정암사 도착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을 10보1배로 순례 중인 보광 스님이 두 번째 적멸보궁 태백 정암사에 도착했다. 1월 1일 부산 불광사를 떠난 지 41일 만인 2월 11일 보광 스님의 은사인 인산 스님, 정진선우회 정도 스님, 현담 스님 및 불광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일주문부터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3보1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수마노탑을 참배했다. 이틀마다 한 켤레씩 장갑을 갈아 끼고, 무릎을 덧댄 두터운 승복바지를 여러 벌 갈아입으며, 현재 총 750km 중 절반에 가까운 347km를 왔다.

보광 스님은 "두 번째 보궁에 도착하면 기쁨의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올라와보니 기쁨도 슬픔도 없이 그저 편안해 보이는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니 여기가 불국토인 것 같다"며 "내 발원은 떠나오던 날 이미 성취됐으니 남은 3곳의 적멸보궁을 향하는 기도에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왼쪽)과 하루 24시간 스님 곁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수부 거사(법명 금곡).

향후 2월 18일 세 번째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에 도착, 3월 2일 오대산 월정사, 3월 17일 백담사를 거쳐 18일 마지막 적멸보궁인 설악산 봉정암에 도착할 예정이다. (051) 809-1420 박지원 기자

낙동노인요양원 개원

진각복지재단 운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낙동노인요양원 개원식을 열었다. 기존 복지관 내 마련된 낙동노인요양원은 입소보호와 요양보호사 파견서비스를 병행하게 된다. 개원식 후 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로 지역 내 어르신 25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벌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낙동노인요양원 개원식이 2월 10일 열렸다.

이날 개원식은 강인길 강서구청장, 김동일 강서구의회의장 등 지역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승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4~7	마일운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이기봉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이기봉	재학생/졸업생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한활안	30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4~7	김영렬	30

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7	마일운	30
범패실습 I	영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산재의례절차 II	상주권공과정	금	오후4~7	이기봉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1~7	한해사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화	오후1~4	한활안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4~7	김영렬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약간명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2009년 1월 19일 ~ 2월 28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2급 정표고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2008년 본교주관 해외공연 : 일본오사카한국문화원 초청 시연, 중국하북성 백림선사 영산재 시연, 통영 임란 호국영령천도 영산대재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 FAX 02)392-3239 / 홈페이지 : www.okchunbud.kr/